

가정 예배 모범

- 2020_11_15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역대하 12:1-16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강하고 견고해지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절)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로 쪼개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 유다는 어려움을 금방 극복하고 잘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하고 견고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만에 빠져 율법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도 왕을 따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잘해서 잘 사는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나요?

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하나님을 버려 심판을 당하는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까?(8절)

르호보암 왕과 온 유다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에 르호보암과 온 유다 백성이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과 군사들로 하여금 유다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빼앗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어떻게 되는지 깨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 여기는 호홉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1YECCPpbbs>)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